

한국 유산균학의 아버지, 그리고 정열과 신념으로 뚝뚝 뭉쳐진 삶!

배인휴 (In Hyu Bae)

순천대학교 명예교수

■ 들머리

미국의 맥아더 장군이 오랫동안 자신의 책상 앞에 붙여 두고 애독했다는 사무엘 울만 (Samuel Ullman)의 금언이 담긴 시 [정열적으로 살라/ Live with Enthusiasm]의 한 단락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그저 여러 해를 살았다고 해서 늙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들은 그들의 이상 (ideals)을 버리게 될 때만 늙게 되는 것이다/세월이 지나면 피부에 주름살이 생기지만, 정열을 잃으면 영혼에 주름살이 생긴다.”

강국희 교수님



필자의 박사학위 지도교수인 강국희 교수님의 삶의 궤적을 조금만 살펴봐도 반짝이는 신념과 뜨거운 정열이 향내처럼 묻어난다. 그래서 종종 뵈 적마다 필자는 “교수님은 저의 롤모델이신데 제가 따라가기가 너무 벅잡니다”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 강국희 교수님은 1975년 10월부터 1979년 2월까지 [한국야쿠르트 연구소] 초대소장을 지냈다. 2001년에 아시아유산균학회를 창설하고 여전한 활동을 펼치셨다. 2004년 한국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학회(전 한국유산균학회)를 창설하여 초대회장을 맡아 초석을 마련하고, 2년 뒤 바로 후학에게 물려 주셨다. 유산균 관련 저/역서만 다섯 권에 이른다(①장내세균의 이야기 ②유산균과 건강생활 ③유산균식품학 ④유산균실험매뉴얼(공동번역) ⑤유산균의 세계). 유산균 관련 연구논문, 기고와 특허는 다른 어떤 한국인들에 비교해 넘친다고 표현해도 과장은 것이다. 그러니 [한국 유산균 연구의 아버지]라고 하는 필자의 상찬(賞讚)을 양해하시라. 강국희 교수님은 한국에서의 유산균 연구의 문을 열고 후학들이 즐거이 매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 강 교수님이 열었던 연구의 결실은 오늘날 [프로바이오틱스] 매출 확장과 함께 산업화 수준의 [유산균 시장]을 형성하였다.

강 교수님은 1941년 경남 함양에서 태어나시고 진주농고, 건국대학교 축산대학을 거쳐 일본 동경대학에서 유산균 연구로 석사와 박사를 마치셨다. 박사학위 심사가 종료된 1975년 10월 한국야쿠르트 연구소 차장직에 보임을 받고 일본야쿠르트 중앙연구소(연구원 200여 명)에 가서 3개월간 유산균, 발효유의 공정관리, bacteriophage 검사 및 종균 관리에 관한 기술연수를 받은 후 1976년 5월에 귀국하여 한국야쿠르트 연구소의 설립과 연구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에 매진하였다. 교수님은 이때 건국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출신의 우수 인재를 채용하여 국내 최초

의 유산균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유산균과 혐기성 장내세균 연구, 유산균 바이러스(파지) 실험의 결과를 연구논문으로 학회에 보고하는 등 우리나라 기업체 연구소들이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기업연구소의 돋보이는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유산균 연구의 허브를 구축하셨다. 본사 임원들로부터 기업이 연구한 결과를 학회에 공개하면 기업비밀 노출인데 그럴 수는 없다는 강한 반대가 있었지만, 기술보급 확산을 앞장 서는 것이 선진기업의 사회 공헌적 사명이라고 설득하면서 의로운 학자답게 소신껏 활동하였다. 교수님은 일본에서의 유산균 연구의 맥을 그대로 이어서 3년간 연구 기반을 다져놓고 1979년 3월부터 성균관대학교 생명공학부에서 교육연구와 후진 양성에 힘쓰시다가 2006년 8월에 정년 퇴임을 하고 현재는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해외학술정보분석, 초중고의 과학강연과 과학교실 지원에 열정을 이어가고 있다.

■ 교수님과의 인연

필자와의 교수님과의 인연은 생각만 해도 참 신기하다. 1977년에 필자의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시절에 교수님은 [낙농미생물학] 강의를 담당하셨는데 그 어려운 미생물학을 너무 쉽고 쏙쏙 이해가 잘되게 강의해 주시는 바람에 나는 그만 교수님에게 빠져들고 말았다. 그때 교수님은 단순한 강의가 아닌 정열의 언어로 미생물학을 내게 쏟아 부어준 거였다. 그러던 차에 필자의 지도교수이셨던 이재영 교수님이 성균관대학으로 옮겨가시고 필자의 논문지도는 강 교수님이 대신 맡아 주셨다. 당연히 연구 주제는 “국산 향신료가 유산균의 증식에 미치는 영향”이었고, 나는 자연스럽게 교수님이 연구소장을 맡고 계시던 당시 영등포에 있는 [한국야쿠르트 연구소] 객원 연구원이 되어 자세한 유산균 연구기법을 배울 수 있었다. 그러다가 건국대학의 대학원 규정에 대학의 정교수가 아닌 교수가 석사 논문지도도를 맡을 수가 없다는 규정 때문에 다른 교수님을 지도교수로 하여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해야만 했다. 그렇지만 결국 당시 필자의 유산균 연구주제가 1983년에 성균관대학으로 박사과정을 입학하는 연결고리가 되어 박사과정 지도교수로 모시게 된 것이고, 그 뒤로 기나긴 인연이 끈끈하게 이어 내려오고 있다. 그 뒤로 종종 교수님 댁을 방문하면 수많은 자료를 모아 정리해둔 서류함들을 볼 수 있었는데, 강 교수님이 남달리 문장력이 좋으신 것은 많은 책을 읽으신 것에 수많은 최신 정보(논문, 잡지류, 국내·외 신문 스크랩)들을 모아서 읽어 내신 자양분들의 결과물이었으리라.

■ [전문가적 사명]과 [과학과 종교의 일치 추구]

강 교수님의 주요 인생 모토는 “전문가적 사명과 과학과 종교의 일치 추구”이다. 교수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유산균 과학자이다. 유산균과 건강에 관한 현장강의가 술하였고, 언론과 각종 미디어를 통해 유산균 보급에 힘쓰셨다. 이십여 년 전부터 꾸준히 실행하시고 보급을 하고 계시는 요로법 강론[알고 보니 생명수]도 유산균 다음으로 강조하는 전문가적 사명의 일환이다. 전문가의 덕목은 자신이 먼저 터득하고 깨우친 것들을 부지런히 논문과 책에 담아 학계에 발표하고 교육과 강연을 통해 사회 환원을 시키는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셨다. 전문가의 입과 손을 통해 나오지 못하고 갇힌 지식이나 정보, 방책은 국가,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라는 것이 지론이다. 국가가 전문가들을 억만금을 들여 동량으로 길러 낸 이유는 국가적 상황과 시대의 경향을 올바르게 직시하고 입과 손을 움직이라는 사명을 잊지 말라는 것이 교수님의 신념이다. 그래서 교수님은 분명히 틀린 일에 대하여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 ‘아니요’라고 외쳤고, 모두가 틀렸다고 할 때 홀로 “맞다”고 하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시다. 그리고 그것을 정열적으로 행동하고 실

천하신다. 과거 1980년대 초의 파스퇴르 유업 저온 살균유 문제, 그 후에도 1996년 아기 분유의 DOP 물질사건, 구제역 발생으로 엄청난 가축을 생매장할 때에 즉각 중지를 시킨 것도 그러하고 1998년부터 지금까지 요료협회장을 맡아 오줌 건강법을 보급하시는 것이 그 두드러진 예이다. 교수님은 대부분 사람이 가는 평탄한 길보다 옳다고 믿는 소수의 편에 서시기를 좋아하신다. 과학과 종교는 대립적일 수밖에 없다. 과학은 보이는 것이고 종교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교수님은 보이지 않는 종교를 보이는 과학으로 드러내어 과학과 종교의 일치점, 종교와 과학의 사실성 추구에 대한 열망이 참 깊으시다. 그래야 인류가 건강한 삶, 행복 추구권이 완성된다고 믿으시기 때문이다.

또 강 교수님은 2016년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는데, 늙은 과학자의 리모델링이라는 이름으로 자연과학 전체(지구과학, 암석의 세계, 곤충의 세계, 지구 45억 년, 우주 137억 년, 빅뱅, 소립자의 세계 등등)를 재학습하시면서 엄청 재미있다고 말씀하신다. 마치 건물이 오래 되면 전기배선, 수도관이 녹슬고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경제성이 떨어지듯이 과학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참으로 맞는 말씀이지만 누구나 쉽게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청소년을 위한 과학의 세계라는 책을 집필하는 것이 올해의 목표라고 말씀하신다.

■ 학회와의 인연

강 교수님은 그동안 꾸준히 활동해 오셨던 우리(사)한국축산식품학회의 회장직을 1999년에 역임하면서 1999년 제24회 추계 학술심포지엄에는 축산물의 안전성 평가와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학술 행사를 개최하였다. 2002년 10월에는 학회에 새 천년을 향한 축산식품의 위생관리체계구축을 위한 워크숍을 제안하여 [제1차 축산식품 최고 전문가 과정 워크숍]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 이것은 교육활동 분야가 학회의 중요한 역할의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직접 실천하신 강국희 교수님의 미래를 내다본 구상이었다고 본다. 이 워크숍은 관련 분야 전문요원집중 교육(기업체 생산직/연구직,

강국희 교수님이 개최한 제1회 아시아유산균학회 창립기념 심포지엄 기념사진 (2001년 10월 26~27일)



출연연구소, 대학원생)이었기에 축산식품의 생산관리 10개 분야의 전문 강사들을 초빙하여 2일간 교육을 하였다. 이때 교육을 수료한 23명은 오늘날 우리나라 주요 식품기업의 중진들이 되어 기업생산과 안전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토록 중요한 학회의 산업체 요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지속해서 이어지지 않고 있음에 늘 아쉬움을 표하셨다. 강 교수님은 한국축산식품학회장의 임기를 마치고 2001년에는 축산식품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발효유와 유산균식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제1회 아시아유산균학회(Asian Conference on Lactic Acid Bacteria: ACLAB)를 창립하였고, 지금은 이 학회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2년 주기로 아시아 50개 국가를 순회하면서 매우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다. 교수님은 이로써 아시아유산균학회의 출발점이 한국이라는 점에서 매우 자랑스러워서 하시는데, 이 학회에는 항상 20여 개 국가에서 수백 명의 젊은 과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2004년에 강국희 교수님이 창립하신 한국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학회와 더불어 축산식품 관련 학회((사)한국축산식품학회, (사)한국유기공학회, 한국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학회, 아시아유산균학회)들이 상호연계 협력한다면 앞으로 더 활발한 국내의 활동

이 기대된다며 당신이 일으키신 학회연계 활동의 소산을 바라보며 자못 흐뭇해 하실 것으로 생각된다.

■ 젊은 연구자들에게 던지는 무언의 행동주의

올해 2월에 갓 정년을 맞이한 필자가 강 교수님의 삶을 왜 롤모델로 삼는지 아는가? 교수님은 나보다 훨씬 정열적이시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산균 연구로 매년 국제유산균학회에 참가하시고 국제 요료법학회에도 참가하신다. 학기 중에는 실험 도구들을 손수 챙기셔서 초·중고등학교 과학강연과 과학교실 지원을 꾸준히 해 오신다. 해외 연수와 여행을 여전히 즐기신다. 나의 경우 정년 2년 전부터 그런 일을 모두 중단하고 업무도 못 냈던 바였다. 과묵하셔서 많은 말씀은 안 하시지만, 교수님은 크고 묵직한 삶의 걸음마다 정열의 언어들에 배어 나온다. 일단 교수님은 호기심이 무척 많으시다. 생각의 흐름 속에 범접할 수 없는 [아이디얼] 함이 번득인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신다. 교수님의 정열적인 삶의 원천은 바로 넘치는 호기심일 터이다. 그뿐만 아니라 강 교수님은 가난한 농촌 출신으로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국가와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퇴 후에도 여전히 전문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하신다. 특히 연금까지 받고 있으므로 더욱 그 리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영국 속담에 “영국 남자들은 49세에 죽어서 60세에 묻힌다”라는 말이 있다. 영국 젊은이들은 49세가 되면 바로 배움과 자기발전에 대한 열정이 식고 호기심이 없어져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지내다가 실제로는 60세에 죽어 묻힌다는 것이다. 사람이 호기심을 잃으면 그때부터 열정이 식게 마련이다. 교수님은 천성적으로 그러한 삶을 생리적으로 거부하신다. 젊은 연구자들에게 굳이 [나처럼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실제 행동하는 삶으로 말씀하신다. 강 교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열적인 삶”이다.

사무엘 올만의 금언을 한 번 더 인용하고 이 글을 마무리한다.

“모든 통신망이 끊기고, 당신의 심장 중심부가 염세주의의 눈(snows)과 냉소주의의 얼음으로 온통 뒤덮이게 되면 그때 바로 그때 진정 당신은 늙게 되는 것이니, 하느님의 가호가 있을진저.”